



日 달군 K 드라마 中 재점화는 아직

일본 '사랑의 불시착' 톱10

2000년대 이후 한류의 핵심 근거지였던 일본과 중국의 관련 기류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게 한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케이(한국·K)드라마'가 선두해 한류 열기를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반면 중국에서는 여전히 '한한령'의 장벽이 높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조치로 한류의 앞날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최근 일본 한류의 선두주자는 tvN '사랑의 불시착'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통해 2월 중순 현지 공개된 '사랑의 불시착'은 현재까지도 '오늘의 톱10 콘텐츠' 상위권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북한군 장교와 남한의 재벌 상속녀의 위험하면서 애절한 로맨스를 그린 스토리가 현지 감성에 다가섰다는 평가다. 이에 주연 손예진과 함께 현빈의 인기가 치솟으며 오랜만에 잡지 표지 모델로 나서는 등 한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JTBC '이태원 클라쓰' 등 케이드라마가 그 열풍을 잇고 있다. 이는 그룹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엑소 등 케이팝의 열기와 맞물리고, 출판·뷰티 등 또 다른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한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현지 유력 신문인 요미우리과 아사히 등도 "2003년 '겨울연가' 이후 경제력을 갖춘 새로운 한류 소비층이 생겨났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최근 중국 한류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도 새롭게 형성됐다. 한국관광공사가 대 중국 관광 상품 프로모션을 벌이면서 현지 정부가 2017년 3월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내놓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다시 현지 대중의 환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중국 한류 소식에 정통한 국내 관계자들은 이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10여년 넘게 현지 영화 제작 등에 관여해온 한 소식통은 7일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현지 인사들의 언급을 비롯해 어떤 움직임도 아직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더욱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수도인 베이징에서까지 봉쇄에 가까운 조치가 시행 중이어서 선불리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 한류를 이끌어 결실을 맺은 한류스타들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길에서 향후 추이에 대비하고 있다. 한류 재점화에 대한 기대를 쉽게 버릴 수 없게 하는 행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블랙핑크 신곡 '하우 유 라이크 댓' 빌보드 핫100 33위



'하우 유 라이크 댓'으로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 블랙핑크. 케이팝 걸그룹 단독 싱글 최초로 빌보드 '핫100' 33위로 진입한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혹 들어오는 후크, 빠져든다"

(후렴구)

- 빌보드

케이팝 걸그룹 중 최고 성적
영 오피셜 싱글 차트도 20위
포브스 "더 높은 순위 기대감"

걸그룹 블랙핑크가 또 한번 '일'을 냈다.

지난달 26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한 신곡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으로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온 블랙핑크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33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7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하우 유 라이크 댓"이 9일 공개하는 '핫100' 차트 33위로 데뷔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팝 걸그룹이 빌보드 '핫100'에서 단독 싱글로 이룬 최고 성적이다.

● '93위→55위→41위→33위→?'

블랙핑크는 2018년 10월 영국 팝가수 두아 리파와 함께 부른 '키스 앤드 메이 크업'으로 93위를 차지하며 '핫100'에 처음 진입했다. 이후 같은 해 단독 싱글 '뚜

뚜뚜'로 5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에도 역시 단독 싱글 '킬 디스 러브'로 41위에 올랐다. 이어 지난달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컬래버레이션한 '사워 캔디'로 해당 차트에서 역시 33위에 오르는데 등 꾸준히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케이팝 걸그룹이 단독 싱글로 거둔 최고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현재 블랙핑크가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성과나 성장세 등에 비춰 이들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언론의 보도도 이를 말해준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블랙핑크의 다음 싱글과 뮤직비디오가 빌보드에서 더 높은 차트 순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빌보드는 "노래의 후크가 너무나 즉각적이어서 매력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든다. 우리의 머리에 박히도록 고안된 후크"라고 평가했다.

● 한복 패션까지 전 세계 시선

이와 함께 '하우 유 라이크 댓'은 이번 주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에서 1위를 기록했다. 미국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걸그룹이 미국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2위까지 오른 것은 2005년 미국 인기 걸그룹 푸시캣 돌스의 '돈차(Don't Cha)'와 2007년 컨트리 밴드 더 칩스의 '넛 레디 투 메이크 나이스(Not Ready to Make Nice)' 이후 처음이다. 푸시캣 돌스는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블랙핑크의 기록을 리트윗하며 "축하한다"고 써 화제를 모았다.

'하우 유 라이크 댓'은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차트에서도 20위에 오르며 한국 걸그룹 최고 기록을 세웠다.

블랙핑크는 패션으로도 연일 화제다. 컴백 무대였던 미국 NBC '지미 팰런 쇼'와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을 개량한 무대 의상을 입은 모습으로 세계 각국 팬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됐다. 해외 명품 브랜드의 모델인 덕분에 협찬 받아 입은 무대 의상도 함께 소화하며 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외모 비하'에 속앓이하는 여성 연예인들

선미 성형 의심·서예지 허리 논쟁
홍진영의 언니 홍선영도 고통 호소

일부 여성 연예인과 예능프로그램 출연자의 외모와 관련한 일부 누리꾼의 비하 혹은 희롱 섞인 시선이 빈축을 사고 있다. 성적 대상으로서만 여성 연예인의 외모를 바라보는 세간의 눈길이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가수 선미는 신체 일부 부위의 성형수술에 대한 '의심'을 받았다. 급기야 SNS를 통해 이에 대한 불쾌감과 항의성 '해명'을 내놓아야 했다. 연기자 서예지도 현재 출연 중인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일부 장면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리 수치에 대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됐다. 허리 라인을 뚜렷하게 강조한 의상을 입은 사진 속 모습에 누리꾼이 과도한 호기심을 드러냈고, 일부 온라인 매체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영통한 시선을 받았다.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동생인 트로트 가수 홍진영과 함께 출연 중인 홍선영씨도 SNS 댓글을 통해 "외적, 내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등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비호감"의 시선이 드러나자 6일 이에 항의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홍씨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체질을 대표하며 영향력을 갖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는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진다.



홍진영(좌)의 언니 홍선영(우)

이를 바라보는 연예계 안팎의 시선도 편치 않다. 7일 한 연예관계자는 "이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으로서 외모의 중요성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면서 "하지만 외모 자체만을 두고 비하와 희롱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최영균 대중문화평론가는 "외모 비하는 차츰 혐오로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들을 존중 없이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그런 시선의 밑바탕에 깔린 것이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연예뉴스 HOT 4



BTS 멤버들, 알고보니 다 '대학원생'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대학원에 진학했거나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7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26)과 슈가(27), 제이홉(26)이 지난해 3월, 진(28)이 2017년 각각 한양사이버대 대학원 광고미디어 과정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이어 지민(25)과 뷔(25)가 올해 9월 같은 대학원 입학을 예정했다. 막내 정국(23)은 글로벌 사이버대 방송연예과에 다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의 군 입대와 연관짓는 시선이 나온다. 병역법상 대학원 재학생은 만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앞서 이들은 "병역은 당연한 의무며 나라의 부담이 있으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혀왔다.

아이린&슬기 '몬스터' 국내 차트 1위



아이린&슬기

걸그룹 레드벨벳의 유닛 '아이린&슬기'가 데뷔와 동시에 국내 차트 1위에 올랐다. 이들은 6일 내놓은 첫 번째 미니앨범 '몬스터(Monster)'로 국내 한

터차트, 신나라레코드, 예스24 등 음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태국 등 전 세계 45개 지역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중국 최대 음악사이트 QQ뮤직과 쿠팡뮤직의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도 석권했다. 이들은 동명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7일 낮 12시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노희경 작가 신작 '히어로' 촬영 연기

노희경 작가의 신작 '히어로(HERO·가제)'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드래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를 연기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7일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촬영이 어려워져 연내 촬영이 힘들게 됐다"면서 "해외 로케이션이나 팬션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제작 및 촬영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라마는 비영리 민간단체 NGO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병헌, 한지민, 신민아, 배성우 등이 출연키로 했다.

송은이·김숙 듀오, 신곡 '7도' 발표



송은이·김숙 '더블V'

방송인 송은이와 김숙의 듀오 더블V가 3년 만에 신곡을 내놨다. 이들은 7일 오후 6시 새 노래 '7도'를 발표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캣캐스트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이 누적 청취수 1억건을 넘어서자 듀오 더블V를 결성했다. 그 해 12월 첫 앨범 '3도'를 선보였다. 이들의 노래 '7도'는 1980년대 스타일의 레트로 디스코 음악이다.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그 가운데 으뜸은 7도' 이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화음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화음은 계속 된다'는 긴 부제로도 눈길을 모은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